

☞ 정책동향 ...

KOVIA

중기청, 공동기술개발펀 최대 2억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중소·벤처기업간 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해 공동 기술 개발에 나서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각종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 협동형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총 50여개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에는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둘 이상의 중소기업이 2년 내로 상용화 가능한 신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총 개발비의 75%까지, 최대 2억원이 지원된다.

중기청은 앞으로 지역특화산업의 공동기술 개발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협력 등에 대한 지원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상대기업을 경쟁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간 협력이 매우 미흡하다”며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간의 단축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중기청, 수출벤처 법률자문단 5월부터 운영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벤처기업들이 수출과정에서 겪는 법률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법무부와 공동으로 ‘수출벤처기업 법률자문단’을 구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법률자문단은 국제상거래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변호사 25명으로 구성되며 수출입 계약서 작성, 대금 지급, 클레임 처리 및 해외투자, 국제 인터넷거래 등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조언한다.

정부는 자문 비용을 건당 200만원, 기업당 최고 400만원까지 지원해 벤처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률자문단 서비스를 받으려는 기업은 자문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각 지방중기청 또는 법무부 국제법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産銀, 벤처-중기에 5000억 R&D 자금 공급

산업은행은 이달부터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가 없는 벤처·중소기업에 5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자금을 공급한다. 대출 한도는 10억원이며 기간은 8년 이내, 금리는 기준금리(5월2일 기준 5.6%)보다 0.5%p 낮다.

지원대상은 성장잠재력이 우수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첨단 신기술 개발과제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술집약형 벤처·중소기업으로, 대상업종은 정보통신, 생명공학, 영상산업, 전기전자, 화학, 재료금속, 기계 및 기타 첨단산업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R&D 특별펀드는 기업들이 원화 또는 외화대출중 선택하거나 혼합해 사용할 수 있다. 자금이 필요한 벤처·중소기업은 기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력을 평가받은 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대출신청은 산은이나 기술신보 각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 산업동향 ...

KOVIA

벤처기업 6.4% 스톡옵션 부여

벤처기업의 6.4%가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중소기업청이 전국 8533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스톡옵션 부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3월말 현재 전체 벤처기업의 6.4%인 542개 기업이 스톡옵션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총 1만3704명으로 전체 벤처기업 임·직원의 5%였으며 부여된 주식수는 1억800만주로 총 발행주식의 7%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24개 업체는 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 외부 전문인력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스톡옵션 부여업체 수를 보면 지난 1999년 58개, 2000년 366개, 2001년 291개, 2002년 276개 등으로 지난 2000년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톡옵션 부여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정보처리 44%, 영상·통신장비 제조 20%, 전기기기 9% 등으로 정보처리업과 첨단제조업이 이 제도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중기청은 벤처기업이 스톡옵션 제도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현재 주주총회 의결사항인 스톡옵션 부여대상 및 수·부여방법, 행사가격 등의 일부를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고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업계동향 ...



〈IT〉 '2007년 IT산업 규모 410조'

우리나라 IT산업은 오는 2007년까지 연평균 15.9%의 높은 성장률을 지속, 2007년께 410조2000억원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기술경제연구부(부장 오길환 박사)가 발간한 '2003 정보통신 기술·산업 전망(2003~2007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IT산업은 반도체 경기회복에 힘입어 올해 17.6% 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광통신·무선통신·디지털방송·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등 10대 핵심기술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보고서는 이 기간에 세계 IT시장도 연평균 6.5%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SW 및 관련 서비스산업 등의 활성화에 힘입어 IT산업은 오는 2007년 3조510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국내 IT산업의 생산비중도 지난해 말 6.1% 선에서 올해는 7.0% 수준으로 높아지고 2007년에는 9.7%까지 확대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또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전체 산업 수출에서의 비중은 지난해 28.5%에서 올해는 31.3%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BT〉 생명공학, 바이오 허브로 거듭난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양규환)이 2012년까지 정규 연구인력 790명, 연간 연구비 2200억원 규모를 갖춘 동북아 R&D 허브 및 세계화 거점으로 발돋움하기로 했다.

생명공학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바이오 허브(Bio Hub)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특히 생명공학 분야의 중추기관 역할을 할 연구 및 인프라 수용을 위해 충북 오창에 분원(오창캠퍼스)을 설립키로 하고 충북도측과 관련 협약을 맺었다.

충북도가 생명연구원에 20년간 무상으로 빌려주게 될 청원군 오창

면 일대 26만4000㎡(8만평)에 조성될 분원에는 바이오신약연구소, 뇌 기능연구소, 재생의약연구소, BT연합대학원, 융합생명공학연구센터, BT산업화지원센터, 생물자원보존센터, 바이오안전성센터, 국가영장류센터 등이 들어서게 된다.

생명연구원은 이 곳을 명실상부한 국내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키울 계획이다.

☞ 기술동향 ...



ETRI, 음성키보드시스템 개발

시각장애인이 맞춤법에 맞는 정확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성키보드시스템이 국내에서 개발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시각장애인의 키보드 입력시 잘못된 맞춤법 사용을 교정해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존 시스템은 시각장애인이 입력한 글자를 정확하게 소리값으로 변환해주지 못했지만 신제품은 복합반침의 잘못된 사용에 대해 음소 단위로 발음을 해줌으로써 오타 발생을 막아준다.

ETRI측은 음절단위 합성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이번 기술을 시현 했으며 메모리 요구량도 적어 개인용 PC 등에 탑재가 쉽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5가지 목소리(성인남자2인, 성인여자1인, 남녀 어린이 각1인)를 지원해 시각장애인들이 듣고 싶은 음성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초고속 광섬유 세계 최초 개발

광통신 속도를 지금보다 4배 이상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광섬유가 국내 기술진에 의해 세계최초로 개발됐다.

광주과학기술원(K-JIST) 정보통신공학과 오경환교수팀은 전송속도를 4배 이상 빠르게 하고 전송거리도 20% 이상 늘려주는 차세대 통신·센서용 '모세관형 고기능 광섬유'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 광섬유는 광섬유 내부에 미세한 공간을 만든 것으로, 공간 안에 특수물질을 넣어주면 빛의 진행속도 조절과 광반사 조절이 가능케 돼 광통신 품질이 월등히 좋아진다고 오교수는 설명했다.

특히 광섬유 내부공간에 원자나 나노입자, 세포 등을 주입한 다음 빛을 흘려보내 서로 반응시키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많은 연구들이 가능케 돼 나노·바이오 분야 발전에도 혁신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내외에 특허출원됐으며 과학논문색인(SCI) 저널 등 10여곳에 발표됐다.